

외국 교과서에서 한국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외국 교과서 속 한국의 다양한 모습

직지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우수한 과학기술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직지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텐베르크 성서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직지를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와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재윤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① 구텐베르크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도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세계적으로 최초는 아니다. 실제로 고려 시대(918~1392)인 1377년에 인쇄된 직지는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책이다. 이는 2001년 9월,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공인받았다.

서울은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을 묘사할 수 있는 많은 단어 중 도시재생, 환경 복원, 역사·문화·경제, 그리고 사람으로 글을 쓴다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서울 도심의 청계천 복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복원은 단순히 하천을 되살린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계천 변을 따라 그려진 벽화는 지난 600년 동안 서울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청계천은 런던의 트라팔가광장처럼 서울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중요한 명소가 되었다. 서울과 한국의 개성과 독창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한류 열풍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한 음식으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③ 한국 전통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성인병 예방과 생식기능 개선, 체중 관리 등에 도움이 된다. 2008년 농림수산물부와 전북대 의대는 ‘한식 및 전통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여 이 같은 효과를 확인했다. 비빔밥, 김밥 등 한식 위주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더라도 혈당지수가 높지 않고 인슐린 지수도 낮아 당뇨 등 성인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글은 외국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관련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직지를 구텐베르크 성서와 비교한 ①은 벨기에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으로, 단순히 한국의 직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텐베르크 성서와 비교하여 정확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직지의 세계사적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지는 벨기에 교과서뿐만 아니라 미국과 인도 교과서, 그리고 에콰도르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미국 교과서에서는 ‘1377년 금속활자로 인쇄된 세계 최초의 서적이 한국에서 만들어 졌다’, 인도 교과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가운데 하나이며, 이 책은 선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고, 인도·중국·한국의 승려 150여 명이 언급되어 있다’고 직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에콰도르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 발명, 직지의 저자, 금속활자 주조 방법, 직지의 제작 과정, 인쇄 기술의 발전과 영향, 직지와 구텐베르크

의 비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서술과 시각자료를 통해 직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는 서울을 소개한 영국 교과서입니다. 글로벌 도시의 주요 사례로 서울을 제시하며 서울의 도시재생과 환경 복원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의 다양성을 소개하였습니다. 외국 교과서에서 서울은 국가 개황, 경제 발전, 도시화 등을 비롯하여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아르헨티나 교과서에서는 서울을 '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표현했고, 독일 교과서에서는 서울의 '공유 경제'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 캄보디아, 이스라엘 등 많은 외국 교과서에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도시화를 상징하는 서울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을 건강해지는 음식으로 소개한 ③은 에콰도르 교과서입니다. 외국 교과서에서 한국 음식은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아니지만, 캄보디아와 콜롬비아 등의 교과서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 소개를 넘어 한국 음식의 건강과 영양학적 이점을 설명한 에콰도르 교과서 서술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주제가 다양해지고 내용 또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 교과서 속 한국은 한국의 역사, 지리,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교과서라는 공식 교육과정을 통해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외국 교과서가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6·25전쟁의 발발이 북한의 침략이었는지, 한국의 침략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서술한 독일 교과서도 있었고, 한국을 스페인의 영토로 표시한 헝가리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인도와 함께 세계적인 면화 생산지로 소개한 오스트리아 교과서도 있었으며, 한국의 산업을 수산업 중심으로 설명한 네덜란드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오류는 대부분 바로잡혔지만, 정확한 정보로 수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외국 교과서에서 한국 관련 내용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교과서에서 한국을 발견할 때마다 내용의 정확성과 상관없이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외국 교과서에 담긴 한국 이야기

제가 속해 있는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에서는 외국 교과서 속 한국 관련 내용을 개선

하는 일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 교과서 오류를 바로잡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고, 한국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과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교과서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교과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여러 국가를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교과서에 활용 가능한 한국 이해 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한국바로알리기 교육 콘텐츠 제작과 활동을 지원하고, 매년 관련 공모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교과서 속 특정 내용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바꾼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해당 국가의 교과서가 개선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때로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오류가 수정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류가 수정되어 개정판 교과서가 출판되었으나 이전판 교과서가 계속 사용되기도 했고, 한국 관련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굳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개선 없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판 교과서가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내용이 교과서에 먼저 수록되기도 했고, 기념으로 제공했던 사진이 교과서에 수록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만 해도 외국 교과서에 수록할 한국 관련 내용으로 대중문화 콘텐츠를 논의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중에 핀란드 교과서에서 시선을 압도하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사진이 2쪽에 걸쳐 수록된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편집회의에 참여했던 핀란드 교과서 편집장은, 해당 페이지에 적합한 사진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차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사진을 발견했고, 이 사진이 글로벌 사회를 표현하는 최고의 사진으로 편집위원회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07년 영국 교과서 집필자에게 선물했던 사진이 2014년 출간된 교과서에 수록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서 개발한 여러 종류의 자료가 외국 교과서에 수록된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특정 문구와 함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첨부한 간략한 자료를 비롯하여, 내용 업데이트를 위한 최신 통계 자료 모음, 한국 역사·경제·문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몇 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구성된 자료, 해외 현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완성된 서책 형태의 보조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개정판


영국 교과서에 수록된 사진의 경우, 사실 교과서 수록용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2007년 영국 교과서 집필자들과 삼성전자를 방문했을 때 전광판에 방문객 이름이 게시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선물했는데, 이 사진 일부가 7년 후 영국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외국 교과서 속 한국

이처럼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외국 교과서에서 기존의 '한국'이 '한국-1'로 바뀌는 성과가 도출되었다고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으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훨씬 다층적인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처럼 보이는 외국 교과서 속 한국을 개선하는 일은 실제로 다른 국가를 이해하고 배우며 한국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과서가 매개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국 교과서 속 '한국'은 정확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어떤 서술이든, 우리와 그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는 연결고리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외국 교과서를 타자로 다루어 우리에게 대한 오류를 신고 있다는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다면, 지금과 같은 교과서 개선 결과는 물론 외국 교과서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는 구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교과서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지금의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이자 유산을 외국의 교과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장(場)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바뀌고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한 잘못된 내용이 수정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을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안 내하고 있거나 언급조차 없는 교과서는 오히려 앞으로 협력과 교류를 통해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의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하는 자원이므로, 기존의 내용을 점검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변화하는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이 느껴집니다.

1975년 한국관시정사업을 모체로 시작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200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던 2005년,

BTS와 같은 K-pop 스타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설명하거나, 위안부 여성들의 삶과 인터뷰,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 경제의 발전, 석굴암·직지와 같은 역사·문화유산이 외국 교과서에 수록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975년부터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일을 수행하였을 많은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외국 교과서 속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필자 소개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논저로는 '영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 '유럽 지역 한국학에서 한국 경제 강좌 탐색', '세계의 역사교육 어떻게 평가하는가(공저) 등 다수가 있다.

선생님, 반짝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나의 부족함이 학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더 멋진 수업, 더 특별한 교실을 꿈꾸지만

때로는 그 기준이 나를 작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실이 항상 재밌고 특별해야 하죠?

매일 먹는 집밥처럼

특별하지 않아도 든든한 하루.

그저 일상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교실에 가장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담담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이

학생들에겐 가장 소중한 배움입니다.

오늘도 교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모든 보통의 교사를 응원합니다.

● **지학사** X **학교 한줄**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7년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주)미래엔

* 2024년 발행 부수 기준

Mirae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엔터처
www.m-teacher.co.kr

